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영조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이보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관한 국제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사회적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향후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제고를 통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까지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회적 환경 변수 중에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성공적 역할모델 및 사업 시장규모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창업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이 제시되었다.

핵심주제어: 창업의도,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 인구통계학적 특성

I. 서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4월 12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3%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분기 수치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빈곤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서정해, 2006; 박철·강유리, 2010).

창업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Krueger & Brazeal, 1994)이기 때문에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까지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인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관한 국제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사회적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향후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제고를 통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국가로 중국, 일본, 홍콩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엔 소재한 국가이기도 하나, 정치체제, 경제규모, 사회인식 등의 방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비교 분석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국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차이점 검토를 통해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도

학술적 용어인 'Entrepreneurial Intention'을 국내 학자들은 '창업의지'(김홍, 2012) 또는 '창업의도'(하규수·윤백중, 2011)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제1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snkcf6@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bylee@hoseo.edu

· 투고일: 2016-07-25 · 수정일: 2016-08-26 · 게재확정일: 2016-08-26

창업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창업의도는 창업이라는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게 되며, 창업에 대한 행위의도적 태도를 뜻하게 된다(윤방섭, 2004).

창업의도는 잠재적 창업자가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Crant, 1996). 이와 같이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Krueger, 1993).

2.2 사회적 환경 요인

의도란 특정 목표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나타내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ird, 1988). 이에 따라 종전의 창업의도에 관한 모델들은 대부분 창업가 개인의 성향, 태도, 행동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환경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창업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Greenberger & Sexton, 1988), 창업가는 내외부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Gnyawali & Fogel(1994)은 창업에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정부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적으로 창업분위기가 고조된 이유로 정부유관기관연론 등이 지속적으로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지원 사업을 해 온 것을 들고 있다.

Naffziger, et al.(1994)는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사업적 환경(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금획득의 용이성), 구체적 사업 아이디어 등을 들고 있다. 김봉준조성의(2014)는 대학생의 지식기술기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 관리능력,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취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성공적 역할모델 및 사업 시장규모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2.2.1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 내에서의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실제적인 창업교육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환·최민정, 2016).

정연우·반성식(2008)에 따르면, 교육자의 창업 교육내용 및 학습지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rk, et al.(1984)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2.2.2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창조와 혁신을 위한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각종 시책들이 정부와 민간에서 제시되고 있다. Gnyawali & Fogel(1994)은 벤처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절차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ee, et al.(2011)는 정부 지원정책이 여성창업가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봉준조성의(2014)는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 정책이 지식기술기반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2.3 성공적 역할모델

성공적 역할 모델의 존재는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사업적 배경은 창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요인으로서 많이 연구되어 왔던 변수이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창업경험이 개인의 창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Shapero & Sokol(1982)은 가까운 가족과 부모가 기업가적 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orris & Lewis(1995)는 가족 배경이나 어릴 적 경험에 대한 노출은 기업가적 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역할모델이지만, 창업과 관련된 역할모델은 부모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의 지인, 유명한 사업가 등도 될 수 있다. 경험 있는 창업가와 국가나 지역의 성공적인 창업 롤 모델의 존재는 잠재적인 창업자들에게 사업은 매력적인 커리어 옵션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Gnyawali & Fogel, 1994).

2.2.4 사업 시장규모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의 사업 시장규모는 기존 연구에서는 변수로 선정된 적이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변수이다. 비교 대상국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 GDP, 천연자원,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장규모는 창업의도 비교연구를 함에 있어서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GDP 및 천연자원 보유 규모는 중국이 월등히 많으며, 사회기반시설은 일본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인구, GDP, 천연자원 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시장규모의 차이는 3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5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는 연구결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창업의도와 나이의 관계에 대하여, 젊은 층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성향이 강한 관계로 젊은 연령층의 창업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철·강유리, 2010)가 있는 반면, 연령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현숙백민정, 2012)도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남학생의 창업성향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는 연구(박철·강유리, 2010)가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창업활성화 요인들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신모, 2005)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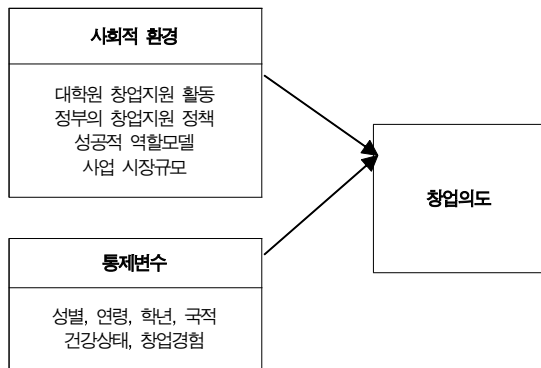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별, 건강상태 및 국적에 따라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였고, 학습과 경험에 따라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학년별 및 창업경험 유무에 따라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지금까지의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미 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미래의 국가경제를 책임질 잠재적 창업가인 한국, 중국, 일본 및 홍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요인인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라는 요소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 설계를 토대로 창업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환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성공적 역할모델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사업 시장규모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성별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연령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학년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건강상태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5: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6: 국적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이용되었던 변수들을 바탕으로 하되, 한·중·일·홍콩 비교연구 수단으로 적절한 변수인 사업 시장규모를 추가하였으며,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관련 지원 활동인 창업 강좌, 창업 상담, 창업 동아리 등에 참여한 경험을 의미한다. 정연수·조성희(2013), 김봉준·조성희(2014)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8개의 문항을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절차 상담, 컨설팅 제공, 자금 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의미한다. 김봉준·조성희(2014), 오상훈(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7개의 측정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공적 역할모델은 성공한 창업가로서 잠재적 창업가가 창업할 경우 롤 모델로 삼을만한 인물을 의미한다. 윤방섭(2004), 박시사·강성일(2007)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부모, 친척, 주변 인물 등 총 6개의 측정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업 시장규모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변수로서,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이 속한 국가의 시장규모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 GDP, 천연자원, 사회기반시설, 교육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개의 측정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는 잠재적 창업자가 장래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할 계획에 대한 본인의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인 Krueger(1993), Crant(1996), Liñan & Chen(2009), Davidsson(1995), 정연수·조성희(2013), 진주형·박병진(2014), 이현숙·백민정(2012) 등의 연구를 통하여 6개 측정항목을 추출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분석 결과

4.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69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건강상태, 창업경험 및 국적을 살펴보았다.

성별에서는 여성 286명(41.2%), 남성 409명(58.8%)으로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았고, 연령은 20세 미만 167명(24.0%),

20세~25세 미만 386명(55.6%), 25세 이상 142명(20.4%)으로서 20세~25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학년은 1학년 158명(22.7%), 2학년 148명(21.3%), 3학년 193명(27.8%), 4학년 196명(28.2%)이었으며, 건강상태는 나쁨 82명(11.8%), 보통 223명(32.0%), 좋음 261명(37.6%), 매우 좋음 129명(18.6%)으로서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창업경험은 없음 610명(87.8%), 있음 85명(12.2%)으로서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80% 이상이었다. 국적은 한국 200명(28.8%), 중국 147명(21.2%), 일본 255명(36.7%), 홍콩 93명(13.3%)으로 나타났다.

4.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는 측정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으로는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고유치(Eigen Value) 1.0이상,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의 경우 0.6이상으로 나타나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26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1>와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6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70.387%였다. 요인 1은 '대학의 창업지원활동', 요인 2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요인 3은 '성공적 역할모델', 요인 4는 '사업시장규모'라 명명하였으며, 신뢰계수가 0.8이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1> 사회적 환경

| 요인 | 문항 | 요인 부하량 | 고유치 | 누적분산 (%) | 신뢰 계수 |
|---|---|--------------------------------|-------|----------|-------|
| 대학의 창업 지원 활동 | 나는 창업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 .818 | 5.455 | 20.982 | .936 |
| | 나는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813 | | | |
| | 나는 우리 대학에서 창업 관련 자문 서비스를 여러 번 받아 보았다. | .798 | | | |
| | 나는 창업교육 강의를 수강해 본 경험이 많다. | .769 | | | |
| | 우리 대학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창업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722 | | | |
| | 우리 대학의 창업교육 강사는 나에게 매우 유익했다. | .716 | | | |
| | 우리 대학은 창업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710 | | | |
| | 우리 대학은 창업을 장려한다. | .699 | | | |
| |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 우리나라 정부는 창업정책 전반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 | | |
| 우리나라에는 창업절차를 상응해 주는 곳이 많다. | | .807 | | | |
|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대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 .795 | | | |
| 우리나라에는 창업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다. | | .794 | | | |
|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대학생 창업에 매우 우호적이다. | | .775 | | | |

| | | | | | |
|------------------|---|------|-------|--------|------|
| 성공적 역할 모델 | 우리나라 정부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 .756 | 4.099 | 56.761 | .896 |
| | 우리나라 정부는 창업 촉진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 .737 | | | |
| |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 .846 | | | |
| | 나는 창업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 .830 | | | |
| | 내가 창업을 할 경우에 롤 모델로 삼을만한 사람이 많다. | .790 | | | |
| | 부모 이외에 가족이나 친척 중에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 .756 | | | |
| | 부모 중 한 분이 창업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 | .683 | | | |
| 나는 존경하는 사업가가 많다. | .677 | | | | |
| 사업 시장 규모 | 우리나라는 사업하기에 충분한 인구 규모를 지니고 있다. | .823 | 3.543 | 70.387 | .882 |
| |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에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SOC)을 구축하고 있다. | .803 | | | |
| | 우리나라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경제규모(GDP)를 지니고 있다. | .801 | | | |
| | 우리나라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732 | | | |
| | 우리나라 교육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671 | | | |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관한 6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표 2>와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1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창업의도를 구성하는 문항은 현재 나는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창업할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창업 정보를 여러 번 수집해 본 경험이 있다, 현재 나는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또는 자문을 받고 있다, 나는 언젠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등이었고, 고유치 4.268, 분산 71.140%, 신뢰계수 .913으로 나타났다.

<표 2> 창업의도

| 문항 | 요인 부하량 | 고유치 | 분산 (%) | 신뢰 계수 |
|------------------------------------|--------|-------|--------|-------|
| 현재 나는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 .889 | 4.268 | 71.140 | .913 |
| 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창업할 분명한 계획이 있다. | .879 | | | |
| 나는 창업 정보를 여러 번 수집해 본 경험이 있다. | .875 | | | |
| 현재 나는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또는 자문을 받고 있다. | .867 | | | |
| 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843 | | | |
| 나는 언젠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 .691 | | | |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측정개념의 하위요인별로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의 평균은 대학의 창업지원활동 2.356,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2.731, 성공적 역할모델 2.479, 사업 시장규모 2.944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사업 시장규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분석

| 구분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 편차 |
|------------|-----|------|------|-------|-------|
| 대학의 창업지원활동 | 695 | 1.00 | 5.00 | 2.356 | .886 |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 695 | 1.00 | 5.00 | 2.731 | .817 |
| 성공적 역할모델 | 695 | 1.00 | 5.00 | 2.479 | .946 |
| 사업 시장규모 | 695 | 1.00 | 5.00 | 2.944 | .835 |
| 창업의도 | 695 | 1.00 | 5.00 | 2.175 | .915 |

또한 측정개념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학의 창업지원활동,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 창업의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범위는 .293에서 .622 사이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분석

| 구분 | 1 | 2 | 3 | 4 | 5 |
|--------------|---------|---------|---------|---------|---|
| 1.대학의 창업지원활동 | 1 | | | | |
| 2.정부의 창업지원정책 | .622*** | 1 | | | |
| 3.성공적 역할모델 | .521*** | .438*** | 1 | | |
| 4.사업 시장규모 | .452*** | .552*** | .382*** | 1 | |
| 5.창업의도 | .518*** | .384*** | .585*** | .293*** | 1 |

*p<.05, ***p<.001

4.4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의 독립변수의 투입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이 2개인 성별과 창업 경험은 t-test를 실시하였고, t-test의 경우 T검증에 의한 유의도 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모집단이 3개 이상인 연령, 학년, 건강상태, 국가는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후다중비교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확인하였고, VIF 값이 1.063에서 2.452 사이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 환경의 하위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VIF 값이 1.111에서 2.589 사이의 값으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성별과 창업경험, 국적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으며,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1단계 | | 2단계 | |
|-----------|------------|-----------|-----------|-----------|----------|
| | | β | t | β | t |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1) | .200 | 5.651*** | .061 | 2.297* |
| | 연령 | .011 | .210 | .000 | .006 |
| | 학년 | -.063 | -1.197 | -.021 | -.542 |
| | 건강상태 | .028 | .766 | .060 | 2.196* |
| | 창업경험2) | .233 | 6.594*** | .066 | 2.463* |
| | 국적3) | | | | |
| | 국적1 | .119 | 2.812** | .075 | 2.087* |
| | 국적2 | -.245 | -5.371*** | .060 | 1.634 |
| | 국적3 | .089 | 2.244* | .097 | 3.206** |
| 사회적 환경 | 대학의 창업지원활동 | | | .141 | 3.869*** |
|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 | | .019 | .536 |
| | 성공적 역할모델 | | | .159 | 4.527*** |
| | 사업 시장규모 | | | .074 | 2.140* |
| F | | 20.835*** | | 58.110*** | |
| R2 | | .195 | | .578 | |
| ΔR2 | | | | .030 | |

*p<.05, **p<.01, ***p<.001, 1)성별(여성=0, 남성=1), 2)창업경험(없음=0, 있음=1), 3)국적(한국=0, 국적1(중국)=1, 국적2(일본)=1, 국적3(홍콩)=1)

1단계 모형은 F=20.835,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성별(t=5.651, p<.001)과 창업경험(t=6.594, p<.01), 국적1(t=2.812, p<.01), 국적3(t=2.244, p<.05)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국적2(t=-5.371, p<.001)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남학생이고 국적이 중국과 홍콩이면서 창업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나, 국적이 일본일 경우 창업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였으며,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9.5%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은 F=58.110,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성별(t=2.297, p<.05)과 건강상태(t=2.196, p<.05), 창업경험(t=2.463, p<.01), 국적1(t=2.087, p<.05), 국적3(t=3.206, p<.01)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환경 요인에서는 대학의 창업지원활동(t=3.869, p<.001)과 성공적 역할모델(t=4.527, p<.001), 사업 시장규모(t=2.140, p<.05)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대학의 창업지원활동과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를 높게 인식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였다.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성공적 역할 모델이 가장 컸으며, 이어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 사업 시장규모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구 가설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하위가설인 1-1, 1-3, 1-4는 채택, 1-2는 기각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개념의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과 창업경험은 t-test를 실시하였고, 연령과 학년, 건강상태, 국적은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t=3.790, p<.001에서 유의하였고,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F=10.616, p<.001에서 유의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는 F=7.258, 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창업의도가 더 높고, 25세 미만보다는 25세 이상, 1, 2, 3학년보다는 4학년의 창업의도가 더 높다는 결과였다.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F=5.636, p<.01$ 에서 유의하였고, 창업경험에 따른 차이는 $t=7.167, p<.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국적에 따른 차이는 $F=27.015, p<.001$ 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들보다는 좋은 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고,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보다는 창업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한국 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다는 결과였다.

결론적으로 창업의도는 남학생, 25세 이상, 4학년, 건강상태 매우 좋음, 창업경험 있음, 중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모든 변인에서 창업의도의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연구 가설 2는 채택되었고, 하위가설인 2-1, 2-2, 2-3, 2-4, 2-5, 2-6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

| 구분 | | N | M | SD | t/F |
|-------|-----------|-----|----------|------|-----------|
| 성별 | 여성 | 286 | 2.022 | .847 | -3.790*** |
| | 남성 | 409 | 2.282 | .946 | |
| 연령 | 20세미만 | 167 | 2.014 b | .970 | 10.616*** |
| | 20세-25세미만 | 386 | 2.149 b | .854 | |
| | 25세이상 | 142 | 2.504 a | .967 | |
| 학년 | 1학년 | 158 | 2.087 b | .959 | 7.258*** |
| | 2학년 | 148 | 2.034 b | .897 | |
| | 3학년 | 193 | 2.063 b | .891 | |
| | 4학년 | 196 | 2.402 a | .873 | |
| 건강 상태 | 나쁨 | 82 | 1.946 b | .942 | 5.636** |
| | 보통 | 223 | 2.015 ab | .904 | |
| | 좋음 | 261 | 2.286 a | .863 | |
| | 매우 좋음 | 129 | 2.292 a | .977 | |
| 창업 경험 | 없음 | 610 | 2.103 | .881 | -7.167*** |
| | 있음 | 85 | 2.971 | .917 | |
| 국적 | 한국 | 200 | 2.243 b | .832 | 27.015*** |
| | 중국 | 147 | 2.528 a | .924 | |
| | 일본 | 255 | 1.811 c | .895 | |
| | 홍콩 | 93 | 2.468 ab | .769 | |

p<.01, *p<.001, a, b, c는 scheffé 검증결과(a>b>c)

V.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최근까지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특히 한·중·일·홍콩 비교연구 수단으로서 적절한 변수인 사업 시장규모를 추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설 1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및 가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의 창업지원활동, 성공적 역할모델, 사업 시장규모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고, 1의 하위가설인 1-1, 1-3, 1-4는 채택, 1-2는 기각되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과 연령, 학년, 건강상태, 창업경험, 국적에 따라서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고, 2-1, 2-2, 2-3, 2-4, 2-5, 2-6은 채택되었다.

국가별 비교에서 차별적인 특징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일본의 대학생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초기창업활동비율(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연구 결과(2013년 기준; 중국 14.0%, 한국 6.9%, 일본 3.7%)와 동일한 결과이다.

사업 시장규모와 관련하여 홍콩 대학생들은 협소한 홍콩 시장을 창업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인들 스스로는 중국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중국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특이한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방섭(2004)의 연구 결과와 동일할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창업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창업을 실천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겠지만, 창업의 긴 과정 중에서 우선적 단계인 창업의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 정부가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각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련부처를 통합한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통한 향후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잠재적인 창업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중에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추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 희망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특정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집단 간 차이를 연구한다면 또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김봉준조성희(2014). 대학생 창업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 기술기반 창업에 초점, *한국창업학회지*, 9(4), 86-106.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1(2), 187-204.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9-19.

박철강유리(2010). 한국, 중국, 몽골,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창업성향에 관한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32(2), 228-246.

서정해(2006).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의식, *경영교육연구*, 43, 153-171.

오상훈(2013).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이신모(2005). 한미일 대학생들의 창업의식 비교, *국제지역연구*, 9(3), 186-207.

이현숙백민정(2012). 청소년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65-84.

정연수조성희(2013).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창업학회지*, 8(1), 57-73

정연우반성식(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3(1), 45-67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하규수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3406-3414.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Clark, B.W., Davis, C.H., & Hamish, V.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6), 26-31.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9), 42-49.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pared for the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1-30.

Gnyawali, D. R. &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Greenberger, D. B. & Sexton, D. L.(1988).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7.

Ha, K. S. & Yoon. B. J.(2011),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8), 3406-3414.

Jeong, Y. S. & Cho S. E.(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 for New Business Startups: Implications for Education Program Design,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8(1), 57-73.

Jeong, Y. W. & Bahn. S. S.(2008). A Study on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3(1), 45-67.

Jin, J. H. & Park, B. J.(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 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4), 101-123.

Kim, B. J. & Cho, S. E.(2014).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Startup Intentions: Focus on Knowledge and Technology Based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4), 86-106.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Lee, H. S., & Baek, M. J.(2012).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2), 65-84.

Lee, J. H., Sohn, S. Y. & Ju, Y. H.(2011). How effective is government support for Korean women entrepreneu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4), 599-616.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121-146.

Lee, S. M.(2005). A Study on the Start Business of US, Japan & Korean Collegiates,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9(3), 186-207.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Naffziger, D.W., Hornsby, J.S., & Kuratko, D.F.(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Oh, S. H.(2013),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up Environments on Young Adults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Park, C., & Kang, Y. R.(2010).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225-246.
- Park, J. W.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on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ark, S. S. & Kang, S. I.(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2), 187-204.
- Seo, J. H.(2006). The Th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about an Entrepreneur in Korea, China and Japan,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43, 153-171.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 Business Review*, 17(2), 89-110.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Cho, Young Jo*
Lee, Bo Young**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aims to provide valuable data to the policy makers in establishing business activation plan through improv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carrying out international comparison research regarding the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 have been multiple researches on personal traits that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ast, but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impact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university's assistive activity for entrepreneurship, successful entrepreneurial role model, and business market scale has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government assistive policies for entrepreneurship has no direc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a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highest in Chinese students. Students who have ever started their own business were highest in total mean comparis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lso entrepreneurial intention mean was higher in men generally. Beside, discussion is made on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entrepreneurial intention, university's assistive activity for entrepreneurship, government assistive policies for entrepreneurship, successful entrepreneurial role model, business market sca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First Author,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